

<현대미술 속으로>

김정희(서울대 미술대학 서양화과 교수)

5. 제1차 세계대전과 미술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헝가리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함으로써 시작되어 1918년 11월 11일 독일의 항복으로 끝남. 기성 세계에 대한 반발로 독일의 많은 젊은이들이 독일이 오스트리아-헝가리 편에 선 전쟁에 자원입대. 그러나 이 전쟁은 독가스, 전차, 비행선, 참호전 등으로 인간을 살인기계화함. 유럽의 젊은이들의 일부는 처음부터 이 전쟁이 제국주의 전쟁의 한 형태임으로 보고 입영을 거부했지만, 자원 입대했던 젊은이들도 전쟁의 실상을 보고 실망. 일부는 정신질환을 앓게 됨. 다다운동은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거부하며 등장. 다다는 인간이 만든 기준을 주관성이라는 맥락에서 거부한 반면, 그 뒤에 등장한 초현실주의는 그것을 이성의 억압이라는 맥락에서 거부. 그 외 많은 미술가들은 전쟁 중과 후에 직접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전쟁에 반대하는 활동을 함.

다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16년 취리히에서 시작되어 1923년까지 스위스(취리히), 독일(베를린, 쾰른, 하노버), 프랑스(파리), 미국(뉴욕)과 일본(도쿄) 등에서 - 서양미술사상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 진행된 예술 경향을 칭함.

1916년 2월 5일 병역을 기피하고 중립국인 스위스의 취리히로 넘어 온 독일인 시인이자 철학자인 Hugo Ball 이 Cabaret Voltaire를 옴. 이곳은 시를 낭송하고 춤도 출 수 있던 곳으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온 병역기피자들을 포함한 지식인들의 집합 장소가 됨. 1916년 다다선언서를 쓰고, 1917년 잡지 *Dada*를 간행한 루마니아인 Tristan Tzara, 베를린 출신 Richard Huelsenbeck이 중심을 이루어 이 모임을 운동으로 발전시킴. 다다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2월 11일 베를린에서 취리히에 도착한 뢰벤벡이 이곳의 행사들을 위한 이름을 찾기 시작, 후고 발과 함께 독,불사전을 보다가 우연히 발견했다고 함.

성격: 반대(anti)라는 미학

1925년 초현실주의 선언서를 쓴 André Breton이 "마음의 상태"라 표현한 다다는 "Anti", 즉 기존의 모든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음. 다다는 기존의 도덕적, 미학적, 사회적 가치 개념과 규범 전체에 대해 회의를 품고 반대. 미술에 있어서는 이성, 정신 중심의 미술, 천재적 개인에 의한 미술 개념, 일상과 유리된 미술을 위한 미술 개념에 반대. 이에 따라 이성 중심에 반대하면서 우연, 부조리, 역설 등을 새로운 미학으로 제시하고, 인간의 주관성을 강조한 표현주의 회화를 거부하였음. 다다이스트들이 우연 법칙을 사용한 것은 인간의 주관성에 대한 신념에 대한 회의와 관계있음. Richter는 "전쟁이 이성적인 사고의 기록으로 바라는 모든 것들을 뒤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연을 법칙으로 제시한다. 우연은 더 심오한 현명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씀.

1917년 정간 잡지 *Dada*가 발간된 것 외에 Galerie Dada가 생기고 그 후 다다는 베를린, 쾰른, 파리, 하노버, 뉴욕 등으로 퍼져 명실공히 국제적인 미술운동이 되었고 자연주의적인 미술 신즉물성(Die Neue Sachlichkeit)

와 초현실주의 미술이 등장할 때까지 그 위력을 발휘함. Max Ernst, Man Ray와 같은 미술가들은 다다의 특성을 초현실주의와 결합. 취리히에서는 Hugo Ball, Richard Huelsenbeck, Hans (Jean) Arp, Tristan Tzara, Marcel Janco 등이, 베를린에서는 Huelsenbeck, Raoul Hausmann, Hannah Höch, John Heartfield, George Grosz, Otto Dix 등이, 쾰른에서는 Max Ernst, 하노버에서는 Kurt Schwitters, 파리에서는 Marcel Duchamp, 뉴욕에서는 Francis Picabia, Man Ray 등이 주로 활동.

초현실주의(Surréalisme)

초현실주의는 1919년 André Breton과 Philippe Soupault를 중심으로 창간된 문학잡지, 『문학(Littérature)』 주변의 문학가들에 의해서 탄생.

의학과 정신의학을 공부한 프랑스 작가이자 시인 André Breton은 전쟁 중 정신과 병원에 근무하면서 전쟁에서 충격을 받아 전쟁 신경증 증세를 보이는 군인들을 Sigmund Freud의 심리분석 방식을 통해 치료함. 전쟁 후 파리로 돌아와 당시 파리에서 유행하고 있던 다다에 참가하고 여러 문인들을 만남. 1919년 그는 시인 Louis Aragon과 Philippe Soupault와 함께 문학잡지 *Littérature* 발간. 취리히에서 온 트리스탄 차라와도 교류. 브루통은 1916년 낭트에서 만난 젊은 Jacques Vaché를 만남. 그는 무관심한 냉소주의와 반 사회적인 태도로 기존의 모든 예술 전통을 무시했고, 24세에 아편을 과용해 자살. 브루통은 자신이 Arthur Rimbaud, Jarry, Guillaume Apollinaire, Lautréamont의 영향을 받았지만, 가장 빛진 사람은 Vaché라고 말함.

*Littérature*의 시인들은 그들의 사고를 검열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쓰는 “자동주의 쓰기”를 실험하면서 잡지에 꿈에 따라 쓴 글을 발표. 브루통과 수포는 자동주의에 더 깊이 들어가 자장기법(Champs magnétiques)라는 방식으로 시를 발표. 이것은 Lautréamont의 시, “말도로르의 노래(VI,3, 1869) “해부대 위에 재봉틀과 우산이 우연히 만난 것처럼 아름답다.”와 같은 시의 연상기법에 따른 것임. 이것은 연상에 의해 단어를 나열한 것으로서 브루통이 자동기술이라고 칭한 이 기법은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작가가 자신을 외부 세계와 완전히 분리시킨 상태에서 생겨나는 모든 형태의 사고를 Hans(Jean) Arp 가능한 한 빨리 받아 기술하는 방법”이라고 정의.

1924년 “제 1차 초현실주의선언서”(2차, 1928)에서 브루통은 처음으로 초현실주의라는 용어의 형식적인 정의를 내림: “초현실주의: 명사, 남성형, 순수한 심리적인 자동주의.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말로 글로 다른 방식으로 사고의 진정한 전개과정을 표현하려 노력한다. 어떤 이성의 통제가 없고 미학적이거나 도덕적인 의문제기의 밖에 있는 사고의 받아쓰기. ... 초현실주의는 확실하고 오늘날 까지 무시된 결합 형태들의 더 높은 놀이에 대한 꿈의 전능함과 사고의 의도가 전혀 없는 놀이에 대한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있다.” 브루통은 위의 선언서에서 “나는 겉보기에 그렇게도 대립적으로 보이는 꿈과 현실 사이의 경계가 미래에는, 가능하다면 사람들이 초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종의 절대적인 현실에서 용해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씀. 다다가 기존의 모든 것을 거부한 것과 달리 초현실주의는 비이성적인 것을 학문적, 이성적인 것으로 파악하려 노력하여 프로이트의 심리분석학에 관심을 가짐. 초현실주의의 프로그램은 모든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의식을 거부하고 영감의 비합리적인 근원에만 의존함. 꿈, 무의식, 환각, 더 나아가서는 곤충들의 성생활, 원시인들의 민예품, 정신병자의 그림 등에 관심을 가짐.

초현실주의자들은 자동주의 기법으로 불리는 이성의 통제를 벗어난 무의식의 받아쓰기, 또는 무의식으로서의 여행과 같은 자동주의 기법 외에 로트레아몽의 시처럼 사물을 일상의 모습과 다른 방식으로 왜곡하거나, 성적 연상에 의해 조합하는 “낯설게 하기(Depaysement)” 기법을 사용. 무의식과 꿈의 영역의 이미지를 “받아쓰기” 위해 프로타쥬, 데칼코마니 등 여러 기법 개발.